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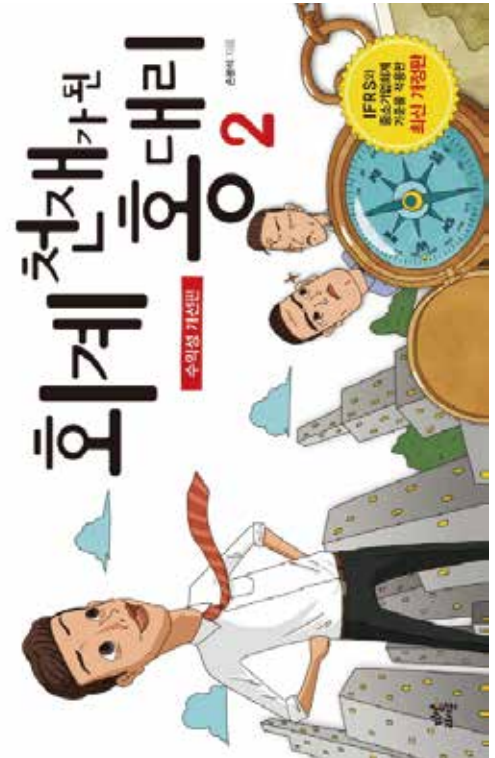
회계 천재가 된 홍대리 2

저자 : 손봉석

출판사 : 다산라이프

『회계 천재가 된 홍대리』 제2권. 회계란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 회계 담당자들만 할 줄 알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계마인드'를 갖지 않고서는 능력을 인정받기 힘든 시대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회사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벌여다 줄 것인지, 어떻게 일해야 회사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지를 항상 생각하며 일하는 직원과 '봉급 받는 만큼만 일하자'라는 생각을 가진 직원 중 경영자는 누구를 더 인정할까요? 이런 마인드의 차이는 성과에도 그대로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수익성 개선편'에서는, 전작에서 회계 천재로 거듭난 홍대리가 '숫자 올령증'을 가진 김현빈 차장을 도와 매출과 수익의 관계를 파헤침으로써 수익성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과 이를 개인의 삶에 적용시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탐욕경제

저자 : 송홍빙

출판사 : 알에이치코리아

『탐욕경제』는 전 세계에 '화폐전쟁 신드롬'을 일으킨 국제금융 및 환율 전문가 송홍빙이 2012년과 2013년의 글로벌 경제에 대해 연구한 성과들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부의 분배'를 통해 경제 활동을 해부하는데 중점을 둔 이 책은 금융권력의 탐욕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거대한 자산 거품을 초래했지만 그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현실을 포착하고, 곧 다가올 슈퍼 글로벌 금융위기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경제의 현황을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자산 거품이 만든 가짜 행복에 취한 미국 경제의 면면을 들여다보고 오늘날의 '차이나 드림'과 과거의 '로마 드림' 및 '복숭 드림'을 비교 분석하여 미래의 증빙명, 즉 차이나 드림에 대한 역사적인 기준의 잣대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탐욕이 흥하면 부의 집중이 생기고, 나아가 국민의 재력이 고갈되며, 결국 내란과 외환이 잇따른다'라는 만고불변의 이치를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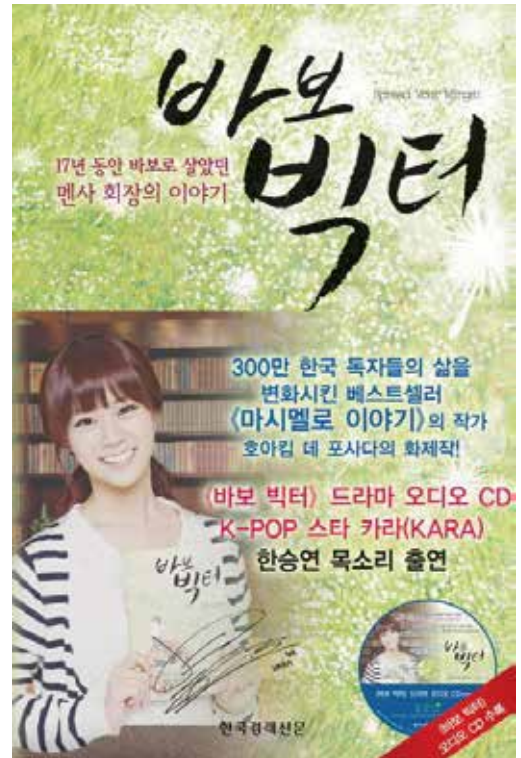
바보 빅터

저자 : 호아킴 데 포사다

출판사 : 한국경제신문

자신의 진가를 모르고 자신감 없이 살아야 했던 IQ173의 천재 빅터와 아름다운 여성 로라의 감동적인 이야기 『바보 빅터』.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IQ173의 천재 빅터와 자신을 못난이로 여기며 살아온 아름다운 여성 로라가 삶에서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국제멘사협회 회장을 지낸 천재 빅터 세리브아코프가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실제 사건과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한 '트레이시'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이론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소설형식을 빌려 따뜻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 용기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도서입니다.



내 인생에 너만 없었다면

저자 : 프랑수아 틀로르

출판사 : 책담

'꾸삐 씨'의 작가 프랑수아 틀로르와 프랑스 정신과 전문의 크리스토프 앙드레가 만났습니다.

틀로르와 앙드레는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로서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힘든 성격'을 11가지로 구분하여 각 성격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각 성격 유형의 정의, 처방과 치료법, 각 성격 유형에 대처하는 법,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성격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질문지를 제공합니다..

'힘든 성격'은 우리의 학교, 회사 등은 물론, 부부, 연인,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또한 '힘든 성격'의 소유자들은 나를 괴롭히는 타인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타인을 괴롭히는 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궁극적으로 그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선사합니다.





”(주)대동기전은 36년간 쌓은 기술과 신용을 바탕으로 성실히 시공하고 있습니다.”



株式會社 大東企電

- 특고압 수전설비
- 자동제어공사, 계장공사
- 무정전 전기공사
- 내선, 외선, 플랜트 전기공사
- 공장, 아파트, 빌딩 전기소방공사
- 신재생에너지사업
- 용해로전기공사
- 소방공사
- 정보통신공사

DAE DONG ELECTRIC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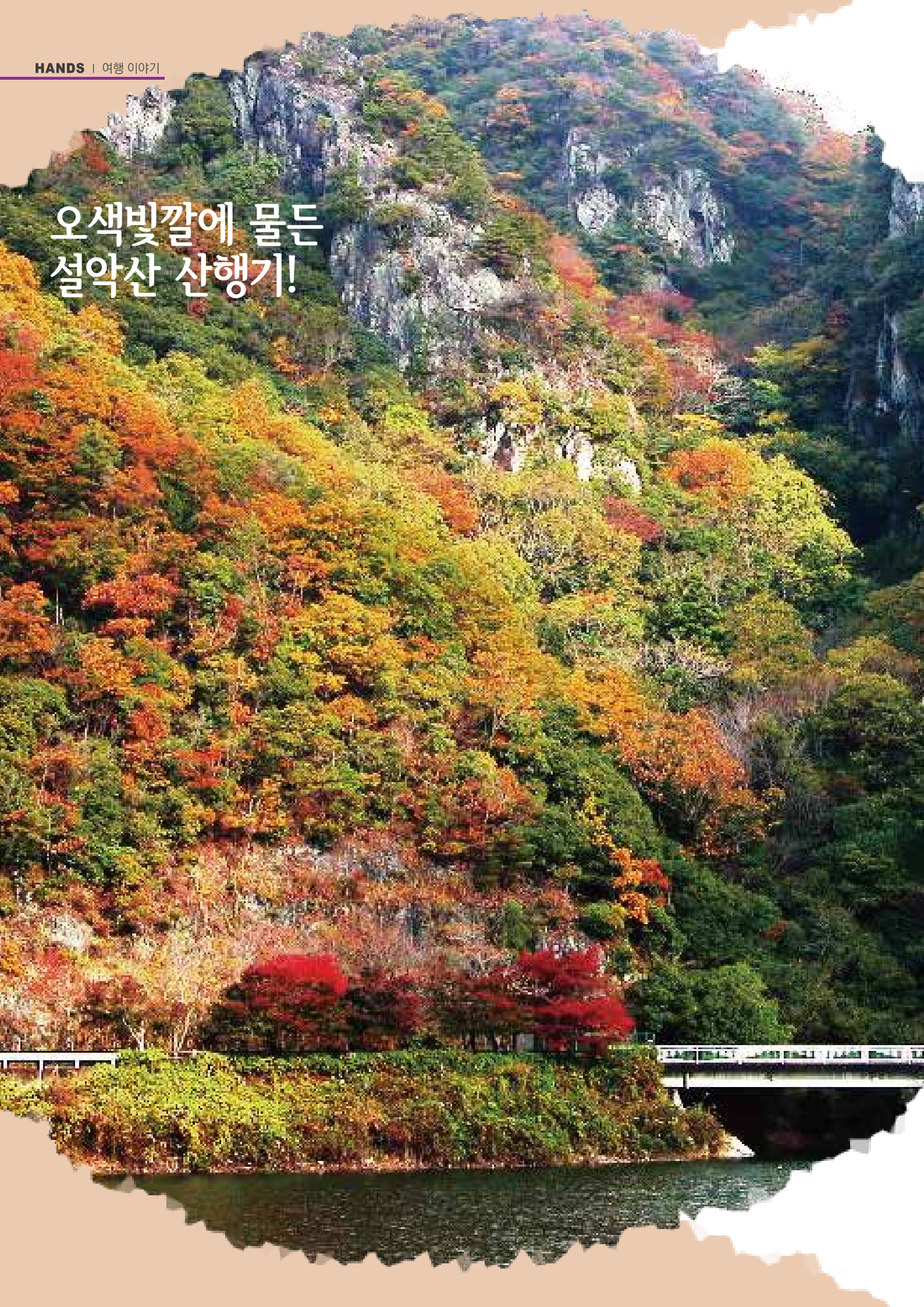
본사 : 인천광역시 강화군 중앙로189번길 8-7 / 지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254번길 19-5

전화 : 032-816-7800 FAX : 032-816-7802 E-mail : ddeco059@hanmail.net

休 HANDS

- 50 여행 이야기
- 52 문화 & 축제
- 54 맛집 탐방
- 56 우리 결혼했어요
- 58 축하합니다.

오색빛깔에 물든 설악산 산행기!



등산의 기쁨은 산 정상을
정복했을 때 가장 크다.
그러나 나의 가장 큰 기쁨은
험악한 산을 기어올라가는
순간에 있다.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가슴이 뛰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고난이
자취를 감췄을 때를
생각해 보라!
그 이상 삭막한 것이
없으리라!

-니체-



붉게 물든 설악산

단풍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설악산은 단풍이 핀 모습이 절경이어서 더 유명합니다.

산은 사계절을 다 오를 수 있지만 계절마다 그 느낌이 다릅니다. 특히 단풍이 진 가을 산행은 붉게 물든 단풍을 통해 산행의 고단함도 모두 잊을만큼 근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설악산 산행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대청봉-소공원 코스

설악산은 여러 산행코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오색에서 대청봉을 오른 후 중청대피소를 거쳐 소공원으로 가는 코스를 선택하였습니다. 총 14시간의 산행은 쉽지않은 않았습니니다.

새벽 3:30분에 오색에서 불빛 하나에 의존하며 산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오색에서 대청봉을 오르는 코스는 가장 짧은 시간에 정상을 오를 수 있지만 그만큼 가파르고 계단식 바위로 되어 있어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발걸음한지도 5시간이 지날때 즈음 대청봉과 마주하였습니다. 힘들게 올라온 여정도 잠시 산정상에서 내려다 본 풍경은 "산에 오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호사"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장관이었습니다.

대청봉에서의 설악산 절경을 만끽하고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중청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대청봉에서 20분거리에 위치한 중청대피소는 숙박 및 간단한 취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대청봉에서 일출을 보실 분들은 사전에 숙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성수기인 10월과 11월은 추첨을 통해 예약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기진 배를 달래고 소공원으로 가는 길에 천불동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천불동 계곡의 천당폭포는 험난한 산행에 마주치게 되면 꼭 천당에 온것과 같은 느낌이라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폭포수의 모습은 대청봉 산정상의 풍경과 버금갈만큼의 절경이었습니다. 시원한 폭포수 바람을 맞으며 내려가다보니 드디어 소공원에 도착하며 설악산 산행을 마쳤습니다.

산행을 마치며...

설악산 '악'산이니만큼 만만치 않은 산행이었습니다. 산의 대부분이 돌로 되어 있어 어느 정도 장비(바람막이 점퍼, 등산화 등)를 갖추고 산행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청봉 산행은 제 삶을 되돌아 보고 굳은 의지도 세울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산만큼 정직한 것은 없다'라는 말처럼 내가 걸은 만큼 더 많은 것을 보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을 맞이하듯이 지금의 제 삶이 오르막처럼 힘들게 오를 지라도 곧 맞이할 내리막을 위해 오늘도 파이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산의 정기를 받아 재충전이 필요하신가요? 그럼 설악산으로 떠나보세요.



HC 자금부 진 용 민 사원

HANDS人만이 누릴 수 있는 문화혜택



재밋고, 신나고, 맛있는 공연,

비빔밥!

온 가족이 함께
외국인 친구와 함께
모두가 즐긴다!

‘비빔밥’은 한국인이자면 누구나 아는 ‘비빔밥’과 일본의 스시, 중국의 누들, 이탈리아의 피자 등 일상 속 우리가 흔히 음식을 만들 때 날법한 소리를 현대적이고 세련된 ‘비트박스’와 ‘비보잉’을 접목한 뮤지컬입니다.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의 만남, ‘비빔밥’은 국내관객들에게는 친숙한 음식과 화려한 비트를, 해외관객들에게는 비트박스, 아카펠라, 비보잉, 마살아츠 등 여러장르를 ‘비빔밥’처럼 맛있게 버무려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여기에 코믹한 드라마와 다양한 시각적 효과가 더해져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세계인 모두에게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특수효과나 녹음이 아닌 100% 라이브로 만들어진 화려하고 세련된 사운드와 음식과 공연이 만난 무대가 어떻게 환상적인 하모니를 끌어내는지는 공연장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밥' 공연은 인천 중구문화회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매주 화요일 ~ 토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HANDS 사람이면 누구나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VIP석	50,000원
R석	40,000원
S석	30,000원



HANDS人
최대 70% 할인
전좌석 15,000원

예약문의 : 1644-1248

전좌석 15,000원이라는 가격으로 공연 관람이 가능하오니 사전에 예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방문 할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할인쿠폰을 소지하시어 방문하시면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공연 '비밥' 관람 계획은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인천 맛집

영종도 황해칼국수

시원한 국물이 생각난다면...

황해 칼국수는 인천 국제공항과 을왕리 해수욕장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공항 용유입시역에서 도로 15분, 차량 5분) 푸짐한 해산물과 시원한 국물로 정평이 난 황해 칼국수는 인천을 넘어 전국으로 그 명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칼국수를 좋아하는 저도 소문을 듣고 이 칼국수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수원에서 영종도까지 방문하였는데 차비와 소요시간이 전혀 아깝게 느껴지지 않았을 만큼 그 맛은 가히 전국 최고라 할 수 있었습니다.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칼국수

황해 칼국수는 해산물이 많이 들어갔음에도 모래가 거의 씹히지 않습니다. 씹히는 모래 때문에 칼국수를 싫어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면발은 쫄깃함을 오래 유지해 국물을 걸쭉하게 만들지 않고, 특유의 깊고 시원한 국물과 잘 어울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격은 8천원으로 칼국수 외 산낙지와 전복 메뉴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식후에 근처 을왕리 해수욕장이나 왕산 해수욕장을 겸사겸사 구경해볼 수 있는 것은 황해 칼국수 방문자를 위한 보너스. 인천대교를 건너들며 시원한 바닷바람도 쐬고 시원한 칼국수를 먹고 싶다면 영종도에 위치한 황해 칼국수를 적극 추천합니다.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로 21번길 3

☎ : 032-746-3017



황해칼국수의 맛평가



서울 맛집 토속촌 삼계탕



전통이 느껴지는 맛

토속촌 삼계탕은 경복궁 근처인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있습니다.故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찾는 맛집으로 잘 알려진 이곳은 오로지 삼계탕을 맛보기 위한 목적으로 경복궁을 방문하는 손님이 많을 정도로 한결같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자자한 맛집이니만큼 그 맛을 보기 위해 타지에서 찾아온 손님도 많았습니다. 다행히 내부가 넓은 편이어서 회전율이 높아 대기시간은 생각보다 길지는 않았습니다.

창업이래 주재료인 닭, 찹쌀, 김치를 포함한 모든 재료를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만을 사용하여 직접 정성껏 만들고 있어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믿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는 삼계탕

한옥으로 만들어진 정겨운 내부 전경과 삼계탕을 먹기 전에 나오는 향긋한 인삼주, 견과류가 뿌려진 삼계탕의 쏠쏠하고 진한 국물의 고소한 맛, 이 삼박자가 어우러지는 토속촌에서는 누구나 그 순간 경복궁에 살았던 고귀한 왕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토속 삼계탕은 보신제로서 으뜸으로 꼽는데, 4년생 인삼과 찹쌀, 호박씨, 검은깨, 호두, 잣, 토종 밤, 약대추, 은행, 마늘, 해바라기씨와 그 외 토속촌의 특수 재료 세 가지를 가미하여 오묘한 향내와 매끄러운 미각까지 맛볼 수 있는 자양강장 건강 음식이기도 합니다.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한 삼계탕은 어떠신가요?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5길 5토

☎ : 02-737-7444



토속촌 삼계탕의 맛평가





HC BUD 김영식 과장

당신을
다
가겠습니다

TO. 소연

두근거림을 잊어버린 나에게

행복을 잊어버린 나에게

사랑을 잊어버린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준 소연아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HC 연구개발부 오행신 과장



H6 품질관리반 전관수 사원

잘 예뻐하게 살겠습니다

TO. 부인

임신으로 입덧이 심해 고생이 많은데 많은 시간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오는 남편을 만나 부인이 고생이 많습니다.

투덜투덜 거리긴 해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이해해주는 부인에게, 그동안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부인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태어날 뽕뽕이를 위해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부모님께 잘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며 천년만년 행복하게 삽시다.

사랑합니다. 부인♡



H6 가공부 이윤석 대리



HC 영업부 어황선 대리



HC 합리화2반 문병철 사원

태어나주셔서 고맙고 사랑해



DH 관리부 최진영 사원



HC 영업부 최정환 대리



HC 안전관리부 노종만 대리



HC 회계부 박찬택 대리



HC 주조반 김동현 사원



HC 도장반 조영석 사원



HC 가공반 임흥기 사원



HC 금형관리반 김창희 사원



HC 출고반 황성훈 사원



HC 금형반 고우진 사원

부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HANDS CORPORATION

열처리반	서순기	조장	주조반	조성완	조장	합리화반	전창열	사원
회계부	한영민	대리	생산3부	이종건	과장	용해반	이용하	사원
금형제작반	박철	사원	열처리반	이왕희	사원	가공5반	고성훈	사원
테스트센터	김정관	주임	도장5반	조훈숙	사원	가공2반	사영일	사원
품질관리반	최성민	사원	가공5반	최대영	사원	표면처리5반	곽남희	사원
생산3부	정철환	과장	열처리반	유이남	사원	가공5반	한동민	사원
연구개발부	오형진	과장	합리화5반	최중현	사원	주조반	이대명	사원
표면처리2반	오경숙	사원	합리화3반	강일환	사원			

HANDS6

표면처리6반 지성 사원

HANDS NEWS



HANDS NEWS 를 만드는 사람들

- 발 행 인 : 승현창 회장
- 편 집 장 : 이호성 이사
- 편집위원 : 윤용로 부장
- 글 / 사진 : 이창민 대리



<표지 모델 : H2 김명순 사원>



HANDS NEWS 에 도움을 주신 분들

HANDS CORPORATION

김영식 과장	장기현 기장	김명순 사원	서승원 사원	천유진 사원
정계선 과장	정상민 주임	진용민 사원	전형진 사원	한창민 사원
안태기 과장	김의수 주임	최광수 사원	정구영 사원	김빛나리 사원
오용환 대리	신성립 조장	최주일 사원	조호원 사원	
김현국 대리	이형식 조장	서동호 사원	조철민 사원	

HANDS 6

양봉식 사원
이재홍 사원



HANDS NEWS 독자마당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HANDS NEWS>를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HANDS NEWS>를 읽고 느낀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실 곳 : cmlee@handscorp.co.kr



HANDS NEWS 문의/신청

분기별로 제작되는 <HANDS NEWS>는 협력업체의 광고 신청을 접수합니다.
광고를 희망하시는 협력업체 관계자분께서는 많은 연락바랍니다.

담당자 : 이창민 대리 TEL : 032 - 870 - 9663 FAX : 032 - 870 - 9666
주소 : 인천 서구 백범로 884 (가좌동 178 - 379) 만인빌딩 4층 편집실



Creative All by HANDS



HANDS
CORPORATION

Think different, Do different



HANDS CORPORATION
www.handscorp.co.kr